



부산여대학보

THE BUSAN WOMEN'S COLLEGE PRESS

성
창
예
실
의
절

제 246 호 2022년 5월 30일 (월)

■ 발행인 정영우 ■ 주간 김정희 ■ 주소 부산광역시 진구 진남로 506(양정동 74) ■ 홈페이지 <http://www.bwc.ac.kr> ■ 전화 051)850-3296(FAX 겸용) ■ 인쇄 국제신문



지면소개

2·3·4 학교소식

5 코로나19

6·7 교수칼럼

8·9 문화

10·11 학생칼럼

12 교수칼럼



‘LINC 3.0 사업’ 선정 ... “친환경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LINC 3.0(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우리대학은 LINC+사업(5년간)에 이어 LINC 3.0 사업(수요맞춤성장형)에 선정되어 앞으로 6년간 최대 12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 선정에 따라 ‘친환경 도시 Life-Hi-FIT 생태계 허브 선점’을 비전으로 로컬관광, 디지털정보, 라이프케어 특화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학연 연계 기반 융복합 교육 고도화 ▲산학연 일체형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산학협력 운영체제 강화 ▲지역상생 공유협업 문화 확산 등의 추진전략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협업센터(ICC), 공용장비활용센터 등을 구축하여 대학과 지역 산업체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영우 총장은 “LINC 3.0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협업해서 특화분야에 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성장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동래구청과 업무협약



부산여자대학교 지난 18일 동래구청과 ‘구·군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여자대학교와 동래구청이 공동 협력해 제안한 ‘전산·보험사무원, HCS(휴먼케어서비스) 특화 취업연계형 인재양성 과정’으로 부산광역시 구·군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휴먼케어서비스(산후관리사·장애인활동지원사) 과정과 전산·보험사무원 과정으로 운영한다. 휴먼케어서비스는 미취업 중장년 대상, 전산·보험사무원 과정은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 전문가 멘토링 등의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 취업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래구는 사업 총괄 관리 및 홍보, 사업비 지원, 취업 지원 등 사업 전반을, 부산여자대학교는 참여자 모집, 교육훈련, 취업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여자대학교와 함께하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우리대학은 지난 3일 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반찬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총장 및 교직원, 학생들 2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날 제공된 반찬(쇠불고기, 어묵볶음)은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향미)를 통해 부산진구 지역 내 전포1동, 전포2동 홀로 어르신 및 저소득층 200여 세대에 전달되었다.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우선협상대학 선정



우리대학은 2022년 부산지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우선협상대학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개편해 실시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진로·취업컨설팅트 신규 채용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지역청년 구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청년 진로탐색 및 전문상담 지원,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지역청년 고용거버넌스 기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다.

부산여자대학교는 앞으로 5년간 15억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 특히 부산 권역 여성일자리 매칭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통해 부산여자대학교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로·취업 연계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강화, 진로·취업 기능 통합 및 협력 연계체제 구축, 부산여성일자리 프로젝트 100 수행을 통한 일자리 매칭 브릿지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장보권 산학협력처장은 “부산 유일의 전문대학 특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정이라는 자부심으로 학년별 취업지원체계와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경력개발시스템 구축, 직무직종별 취업교육,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의 강화에 힘쓸 것이며 이미 2년간 코로나 팬데믹에 발 빠른 대응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부산여자대학교의 비대면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메타버스 플랫폼 “대일월드”, 온라인 취업교육콘텐츠 전용 홈페이지, 진로가이드e-book) 등을 통해 정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새마을동아리연합회 발대식 참가

지난 27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제52주년을 기념하는 ‘제12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부산 시내 10개 대학과 함께 [부산새마을동아리연합회 창립 발대식]에 동반 참가하였다.

부산시새마을회(회장 제종모) 주최로 열린 이번 부산새마을동아리연합회 창립 발대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등 내빈과 10개 새마을동아리대학이 참석하였고 우리대학에서는 장보권 산학협력처장, 김순경 새마을동아리 지도교수, 부산여대새마을동아리 집행부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주요 행사내용은 새마을의 날 기념식, 식전공연, 위촉장수여, 기수입장식, 창립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등이다.

부산새마을동아리연합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젊고 다양한 MZ새마을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영구(young-舊)잇기의 세대보완을 이루고자 하며 전국에서 최초로 결성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여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경남정보대, 대동대, 동명대, 동서대, 동주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여대, 신라대 등 부산지역 10개 대학에서 대학생 4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속 대학생들은 탄소중립실천 등 환경운동, 교육봉사, 나눔과 돌봄을 위한 공동체운동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장보권 산학협력처장은 우리학교가 정기적으로 학교 인근지역 중심의 클린캠퍼스 봉사활동과 겨울철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매년 실천해 오고 있지만, 이번 새마을동아리연합회 참가를 통해서 탄소중립 현

장강의 활동 및 해외봉사활동 참여, 복지사각지대 돕기 등 공동체 운동 현장활동, 재능기부를 활용한 나눔 문화운동,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나무심기 및 탄소 에너지 줄이기 홍보활동 등 지역사회와 해외봉사에 보탬이 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포부를 밝혔다.

부산여자대학교, (주)제이케이크라프트와 업무협약



부산 지역 막걸리 제조사 제이케이크라프트와 부산여자대학교가 체험형 발효문화 콘텐츠 인프라 구축에 함께 나선다.

부산여자대학교는 지난 17일 (주)제이케이크라프트와 '발효메카 구축과 체험형 전통 지식산업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의 전통발효를 주제로 한 문화체험, 관광, 미용 및 다도 등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발효기술 및 설비, 소프트웨어를 구현 △인력, 시설 설비의 공동 활용 △인적·물적 자원, 연구성과 및 관련 정보 공유로 발효문화콘텐츠 지원 및 협업

시스템 구축 등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제이케이크라프트가 추진하는 '발효 스테이' 설립에 부산여대는 주주로 참여해 발효메카 구축과 체험형 전통 지식산업 구현을 위해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이케이크라프트는 와인 소믈리에이자 사케전문가인 조태영 대표가 설립한 막걸리 양조 기업으로 막걸리는 물론 막걸리 효모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지역 막걸리 문화형성에도 나서고 있다.

출처 : 부산제일경제 (<https://www.busanecconomy.com>)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판식



우리학교는 지난 3/30일 본교 학생서비스센터(7번)에서 종합적인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고용 촉진과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부산여성일자리

통합연계의 허브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은 정영우 총장, 장보권 대

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류민임기획실장, 이상준학사지원처장, 김정희 입학홍보처장, 강영숙 학생처장, 김명수 사무처장, 장기열 산학협력단장, 강화정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김순경 진로취업창업지원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센터 소개, 축사, 커팅식, 시설 순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대학은 2022년 부산지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우선협상대학에 선정되었다.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개편해 실시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진로·취업컨설턴트 신규 채용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졸업예정자 및 졸업후 2년 이내 청년, 지역청년 구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로·취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통합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부산여성일자리 통합연계의 허브 역할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으로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교육하고 여성인력개발을 활성화하여 경쟁력 있는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본 대학 및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여자대학교 정영우 총장은 "창의적인 개성과 감성적 여성가치를 실현하는 인재로서 새로운 환경을 담대히 개척해 실력 있는 여성리더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허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고용서비스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별 협업체계 마련 등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MOU체결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여자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은 반려동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MOU체결을 맺었다.

이번 체결은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공동연구,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과 현장 연수, 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취업과 프로젝트 공동수행에 대한 사항 등 두 학교가 협력하여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산여자대학교 동물보건과 백승욱 학과장과 이영덕 교수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동물보건과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여자대학교는 이번 체결을 통해 동물보건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제공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우 총장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의 협약으로 반려동물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발전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부산여자대학교 동물보건과의 동물보건사 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로 바뀐 코로나 19 방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아요!

1. PCR 검사 인받어도 확진 인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이 나오면 따로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 단 자가검사키트 양성은 추가로 PCR 해야함



온누리병원요양센터

자세히 알아보아요!

2. 먹는 약 병원에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만 처방 가능



온누리병원요양센터

자세히 알아보아요!

3. 입국격리 해제

2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라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됐던 자가격리(7일)를 안해도 됩니다.

*백신접종완료자 : 2차접종까지 마친지 6개월이 안
됐거나 3차접종을 받은 사람을 말함



온누리병원요양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2022년 3월 14일 기준으로 코로나 19 새로운 방침이 적용 되는데요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전에는 신속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 나오면 보건소나 인근 병원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하고 PCR 검사에 양성 뜨면 확진으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뜨면 따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으로 인정이 돼요.

단, 자가검사키트로 개인이 스스로 검사한 양성 결과는 확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이제는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양상 관정을 받으면 바로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60세 이상만 약을 처방 받을 수 있으며 이외 처방 대상자인 40~50대 고위험군이나 면역저하자는 PCR 검사를 추가로 받고 여기서 양성 나오야 약을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월 21일부터는 백신접종 완료자라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실시했던 자가격리 7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백신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까지 마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접종을 받은 사람은 말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19 고위험군이 아닌 가벼운 증상을 앓는 환자는 격리없이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하고 학생과 교직원인 경우에는 동거중인 가족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와도 등교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관, 종교시설, 기차, 비행기, 교통시설 등 모두 실내에서 취식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된다 단, 50인 이상의 집회와 공연, 스포츠 관람시에는 여전히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니 이점을 꼭 알고 있도록 하자

또한 4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되었다.

정부는 이달 25일 고시개정을 통해 코로나 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 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는 최고수준의 격리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이로 인해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일반 의료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며



손영순
(보건행정과 교수)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폭탄이 터지고 삶의 터전이 산산이 부서지며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고, 또 어디까지 전개될지도 모르는 전쟁의 두려움 속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현재를 살고 있다. 러시아는 전승기념일인 5월 9일까지 전쟁을 종식하고 열병식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온갖 생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과는 달리 인간의 이성과 문명이란 것이 참으로 허망하지 않은

가! 라는 자괴감에 빠져들게 한다.

이를 바라보는 필자는 7시간 시차의 먼 곳에 있는 한 나라의 비극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비한 현실과 미래, 그리고 인류애에 관하여 언급하고 싶다.

우크라이나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44세의 집권 3년차로, 3~4일이면 우크라이나가 점령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암살 대상으로 자국을 떠나려는 권고와 러시아 탱크, 장갑차가 키이우로 진격하고 미사일 일이 수도를 폭격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집무실을 이동하며 화상연설 등으로 결사항전을 촉구했다. 지도자의 용기는 국민을 단결시켰고, 러시아군을 맞아 엄청난 전력열세에도 항전을 계속하고 있다.

처음 전투복 차림으로 전선에 나타났을 때는 초보 지도자의 부자연스러움이 묻어났지만,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국가 정상들과의 화상회담과 UN총회와 유럽의회, 미국과 일본 등의 화상연설에서 기립박수를 받는 모습에서 그는 용기있고 진정성있는 리더십을 자국민과 세계인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 확인시켜 주는 어록을 보면, “도피할 항공기가 아닌 탄약이 필요하다.” (도피를 돕겠다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삶은 죽음을 이기고, 빛은 어둠을 이긴다.” (유럽의회 연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 (영국 하원 화상연설) 이와같이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움직이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새 정부가 시작되는 우리나라도 진정성이 있는 좋은 나라로 이끄는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경제, 외교, 국방에 관하여, 첫째로 경제면에서는 물가 인상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터키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61% 이상이 되었으며, 물가 상승률이 연간 4%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인상을 가중시킴에 따라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의 위축, 저축둔화, 투자위축(재생산 투입 위축)의 악순환에 경제의 적신호(GDP 1% 하향)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두번째로 외교적 측면

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의 당위성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동맹에 힘입어 한반도 균형을 어쩔수 없는 냉전시대로 회귀시켜 전쟁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어 한미, 한일, 한중, 한러 관계의 새로운 외교의 틀을 짜야 할 듯하다. 세번째로 국방에 있어 우리의 국방력은 세계 8위(북한은 27위)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한 대비는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창과 방패가 모두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인류애적 측면에서 부차(키이우의 외곽도시)의 학살, 약탈, 파괴, 지뢰, 접촉탄 살포 등의 전쟁에 대해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은 반대한다. 부산의 광안리 해변에서 매주 토요일 밤의 드론쇼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표현해 러시아의 전쟁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지켜보며 우리나라에도 인류애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인간의 이성과 인류 문명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뜻이 지는 봄밤에 다시 되새겨 본다.

행복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다



김두범
(아동보육과 교수)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 뿐이다. 바로 행복이다. 다른 모든 가치는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행복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가장 강렬한 슬픔을 주는 것도 사람이다. 사람은 만남과 헤어짐에서 가장 많은 자원, 즉 감정의 자원, 경제의 자원을 소비한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결혼식에 돈을 많이 쓰고, 헤어짐의 장례식에 돈을 많이 쓴다. 만남과 이별이 인간 행복의 처음이자 끝이다.

행복감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연구에 의하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사람들은 연인,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다. 연인을 친구라고 생각하면 행복감을 주는 사람 = Family + Friends, 두 F다.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그런데 한 개인이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최대치는 150명이라는 연구를 한 사람이 로빈 던바(R. Dunbar·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진화인류학과 교수로 개인이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를 추정된 ‘던바의 법칙’을 발견)다. 던바는 인간의 사회성을 비교해보니 가족과 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핵집단은 5명이다. 5명은 믿고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절친한 친구가 5명이 되나요? 그리고 그보다 3배 정도 되는 친한 친구(베스트 프렌드)가 15명이고, 35명이 좋은 친구, 그보다 3배 가까이 친구이다.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는 150명이다. 우리 뇌의 인지적 용량은 150명 이상과 친밀하게 지낼 수 없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Edward Hall)은 ‘숨겨진 차원’에서 사람의 공간을 인간관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밀접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인 거리가 있다.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거리를 제시한다.

‘밀접한 거리’는 46cm 미만(가족이나 연인), ‘개인적 거리’는 46cm~1.2m(친구), ‘사회적 거리’는 1.2~3.6m(사회생활에서 만난 상대), 그리고 ‘공적인 거리’는 3.6~7.5m(개인과 대중 사이)이다. 관계의 깊이에 따라 최적의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니컬러스 크리스타키스, 제임스 파울러는 ‘커넥티드(connected)’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즉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

는가.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고 한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내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15% 증가하게 된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10% 증가하게 된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약6% 증가하게 된다. 4단계쯤 가면 그때서야 영향력이 없어진다. 그 만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근목자흑 근주자적(近墨自黑 近朱自赤),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게 물들고 붉은 색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붉게 물든다.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해진다. 즉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복한 사람 옆에 머물고 불행하고자 한다면 불행한 사람 옆에 머물라.

행복은 좋은 느낌이다.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선 좋은 것,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좋은 느낌을 가지려면 꽃, 나무, 음악, 독서, 그리고 좋은 사람과 자주 접촉해야 한다. 그러므로 좋은 것,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이고 완벽한 행복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에드 디너는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조금 불행한 행복을 원하라”고 말한다.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83%의 기쁨과 17%의 슬픔이 균형을 이룰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버라 프레드리슨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는 삶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비

율이 2.9대 1 이상은 돼야 행복감을 느낀다는 행복 방정식을 제시하고 있다. 삶의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보다 3배 이상 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는 거다.

행복이란 얼마큼 행복한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라는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얼마큼 내가 그것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가라는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 더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외부 조건의 경우 행복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행복을 찾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소확행(小確幸)’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한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랑겔한스섬의 오후」라는 수필에서 나온 단어로 행복을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냅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쓸 때의 기분...”이라고 정의했다.

소확행은 덴마크의 ‘휘게(hygge)’, 스웨덴의 ‘라곰(lagom)’, 프랑스의 ‘오캄(au calme)’과 비슷한 개념이다.

철학자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행복을 위해서는 얼마나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냐! 정확히 말해 최소한의 것, 가장 부드러운 것, 가장 가벼운 것, 도마뱀의 살랑거리는 소리, 하나의 숨소리, 하나의 날갯짓, 하나의 눈짓... 작은 것들이 행복을 이루고 있다. 침묵하라.”

한 잔의 차



여상미 다도관장
(미용과 교수)

우리는 매일 차 한 잔을 마신다. 차의 종류는 각각 다르며 차를 마시는 이유도 다르다. 그냥 좋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또는 힐링하기 위해서 등등. 차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 나는 녹차를 즐겨 마신다. 출근 후 다관에 차를 우려서 혼자서 차를 마시면 어지러운 나의 머릿속과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다.

다관에 차를 넣고 물을 부으면서 차가 우리 나기를 기다린다. 현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나는 물질적인 행복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행복은 마음의 편안함,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깨달음 속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방법으로 다도를 한다. 정성을 다해 차를 넣고 물을 넣고 온 정성으로 차를 우려고 마시다 보면 이 순간 오롯이 집중하면서 번뇌조차 잊게 되는 것이다.

다도는 차와 도이다. 여기에서 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말한다. 그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즉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다도인 것이다. 실리만을 추구하고, 대립과 갈등이 만연하고, 번뇌가 아우성치는 생활 속에서 나에게 돌과구가 되어주는 것이 다도이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만 있지 않고 내적인 삶의 자세에 달려 있다. 행복의 기준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다도인 것이다. 즉 차 한 잔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 자신 말고 또 중요한 것은 타인이다. 타인과의 관계 즉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은 우리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차 한 잔속에도 들어있다. 차를 대접하기 위해 정성껏 차를 우려고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차를 우려는 것이다.

일기일회(一期一會)라는 말이 있다. 예전에 한 스님이 계셨는데 자리를 자주 비우는 바람에 그 스님을 보고자 하는 분이 항상 헛걸음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게으른 비구는



내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글을 남기고 갔는데 이를 본 스님이 크게 느낀 바 있어 그 후부터는 자신의 호를 금일암 즉 내일을 기억하지 못함,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말로 바꿔 자신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금일암! 오늘이 바로 한 평생이라는 마음으로 생활하게 되었고 여기서 일기일회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일기라는 말은 한 생애를 의미한다. 일기 일회란 한 생애에 한 차례 만난다는 의미로 매사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 이제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작가는 차를 마시는 한 번의 찻자리도 깊은 주의를 해야 하고 오늘의 만남이 다시 있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또 이번 생애 단 한 차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그 찻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찻자리에 가면서부터 주인은 만사에 마음을 써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깊이 진절하여 진정을 다 해야 하고, 손님도 이 만남이 두 번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음에 대하여 감탄하며 참된 마음으로 찻자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정 스님은 차를 마신다는 것이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사물을 관조하는 여유를 갖게 되는 삶의 맑은 여백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한번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그때그때 감사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이 일기일회라고 하였다. 모든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남은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이라고.

우리는 지금 그리고 주어진 현재 상황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일기일회이며 한 번의 기회이며 한 번의 만남이라 생각하면 세상을 고마움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일기일회를 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한다면 일이 매우 즐겁게 될 것이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울 것이며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다.

한 잔의 차 속에 일기일회가 있는 것이다. 차를 우리가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차를 마시고 또는 대접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은 진지해지며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도 온 정성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도인 것이다.

나는 오늘도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자 한다. 착한 마음으로 살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현재에 최선을 다해 살자고.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또하나의 위드코로나



전혜정
(간호학과 교수)

지금쯤이면 사라졌으리라 믿고 싶었던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세 번째 봄이 학교에 찾아왔다. 코로나 19시대의 지식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종말의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 된다.

혹독한 이 시간이 언제쯤이면 끝날까? 얼마의 시간을 더 이렇게 보내야 편안하고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날들로 우리를 인도할까? 수업을 시작하기 전, 각 강의실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교수와 학생들

은 KF94 마스크 착용이 거의 의무화되었고, 매일 늘어만 가는 학생, 학생 가족의 확진 소식과 밀접 접촉에 의한 격리 소식을 들으며 교수 중엔 마스크를 2개씩 쓰고도 불안해 전전공공하며 어찌할 줄 모른다.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현장이 바뀌었다. 교육 길드 시스템이 해체되고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가 사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을 교육하며, 학습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일상화로 학교의 존재 이유, 목표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되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학교는 언제까지나 영원할까. 앞으로는 크게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 벼루에 먹을 갈고 붓으로 글을 썼다. 하지만 붓은 펜으로, 다시 키보드는 수단으로 대체됐다. 모든 교육이 줌으로 이루어지고 비대면 원격수업은 거스를 수 없는 교육 방식이 되었다. 이제는 미래 교육을 위해 학교도 보다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여유도 없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은 현장수업의 보완재

로서 훌륭한 도구이다. 그러나 현장수업을 대체한다고 믿는 순간 인류는 커다란 교육적 가치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현장수업을 대체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만 팬데믹 시대처럼 현장수업이 부득이하게 불가능해질 상황이 언제든 도래할 수 있음에 염두를 두면서 비대면 수업의 한계점을 보완해 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에 대비해 단순한 지식전달의 수업이 아닌, 함께 팀워크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순 화면의 분할된 이미지만을 공유하지 않고, VR 활용이나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최대한의 현장감 복원이 시도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시대에 누구나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인 만큼 적극적인 투자로 교육환경 격차에 차별받는 학생은 없어야 한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는 체계적인 정책 대응 능력을, 대학교에서는 새로운 상황과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리더십과 운영 역량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질 높은 교육과 학습격차 완화에 학교가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돌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일이나 모임이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로 운영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치 않게 원격근무와 온라인 회의가 자리잡고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새로운 네트워크 형식인 SNS로 대중들과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 대신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득 안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가 넘쳐나기를 기대해본다.

아직 안심할 수 없지만,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황량했던 대학 교정에도 3년 만에 학생들이 보인다. 개강 이후 조심스럽게 대면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소망하던 팀 학습도 하고 있다. 이제 거리 두기 대신 어깨동무를 가르쳐도 될까? 학교에 진짜 봄이 오고 있다.

제주도 명소 추천

일상 회복, 떠나온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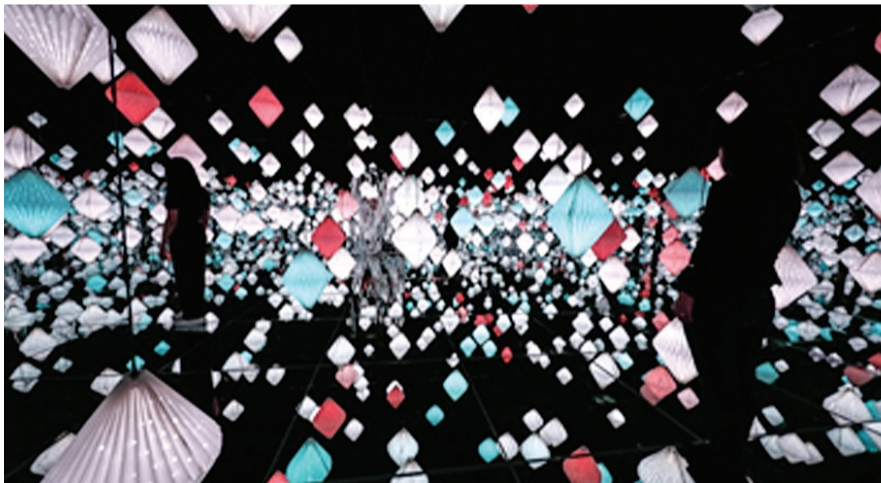
일상 회복과 더불어 성큼 다가온 여름, 코로나로 지친 우리들을 위해서 이번 여름에는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과 다채로운 색깔의 관광명소를 가지고 있는 신비의 섬 제주도로 떠나보자.



화려한 수국의 향연, 마노르블랑

- 주 소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2100번길 46 1층
- 운영시간 : 09:00 ~ 18:00
- 이용요금 : 초등학생이상 4,000원 / 미취학(36개월이상) 2,000원

마노르블랑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수목원 겸 카페로 축제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이다. 가지각색의 화려한 수국과 사계 앞바다가 보이는 환상적인 조망은 마노르블랑에서만 만날 수 있다. 산책로와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준비 되어있고 산책로를 거닐다 쉬고 싶으면 카페까지 있으니 금상첨화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웅장한 빛과 소리의 다채로운 전시, 아르떼뮤지엄 제주

- 주 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림비로 478
- 운영시간 : 매일 10:00 ~ 20:00
- 이용요금 : 성인(20세 이상) 17,000원 / 청소년(14세~19세) 13,000원
어린이(8세~13세) 10,000원 / 아동(4세~7세) 및 경로(65세 이상) 8,000원

제주도의 최대 명소, 아르떼 뮤지엄 제주는 국내 최대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으로 영원한 자연이라는 주제 하에 전시 작품들을 제작하며 지역별 자연과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컨셉과 작품들로 구성되어있다. 아르떼 뮤지엄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제주도를 하면 떠오르는 동백, 해변, 유채 꽃 등의 작품들이 전시되어있다. 투명한 유리벽 공간과 다채로운 조명 아래서 인생샷은 물론, 유명화가들의 작품까지 감상 할 수 있다.



하얀 모래, 코발트빛 바다 풍경 김녕해수욕장

- 주 소 :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백사장에 깔린 하얀 모래와 푸른빛의 맑은 바닷물의 조화로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김녕 해수욕장.

캠핑, 수상레저 등 다양한 액티비티한 활동을 체험 해 볼 수 있으며,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있어 물놀이도 가능하다. 물놀이 활동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모래 위에서 발바닥 화상 또는 이물질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슬리퍼나 아쿠아슈즈 같은 신발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등의 기본수칙을 지키는걸 잊지말자.



시원한 바람과 탁 트인 풍경, 신창풍차해안도로

- 주 소 : 제주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481-23

기습이 탁 트이는 해안도로를 따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보이는 하얀 풍차와 에메랄드 빛 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포토스팟은 덤.

하얀 풍차와 해가 질 때 짙은 주황빛으로 물들어지는 해안도로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제주도의 일몰 명소이다. 일상회복에 갈 곳이 너무 많아 들뜨지만, 실내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통해 혹시나 모를 코로나에 대비하며 즐거운 여행을 하자.

그 여름의 끝

이성복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역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여름 방학

나태주



여름방학 때 문득 찾아간
시골 초등학교

햇볕 따가운 운동장에
사람 그림자 없고

일직하는 여선생님의 풍금 소리

미루나무 이파리 되어
찰찰찰 하늘 오른다

여름이 오면

이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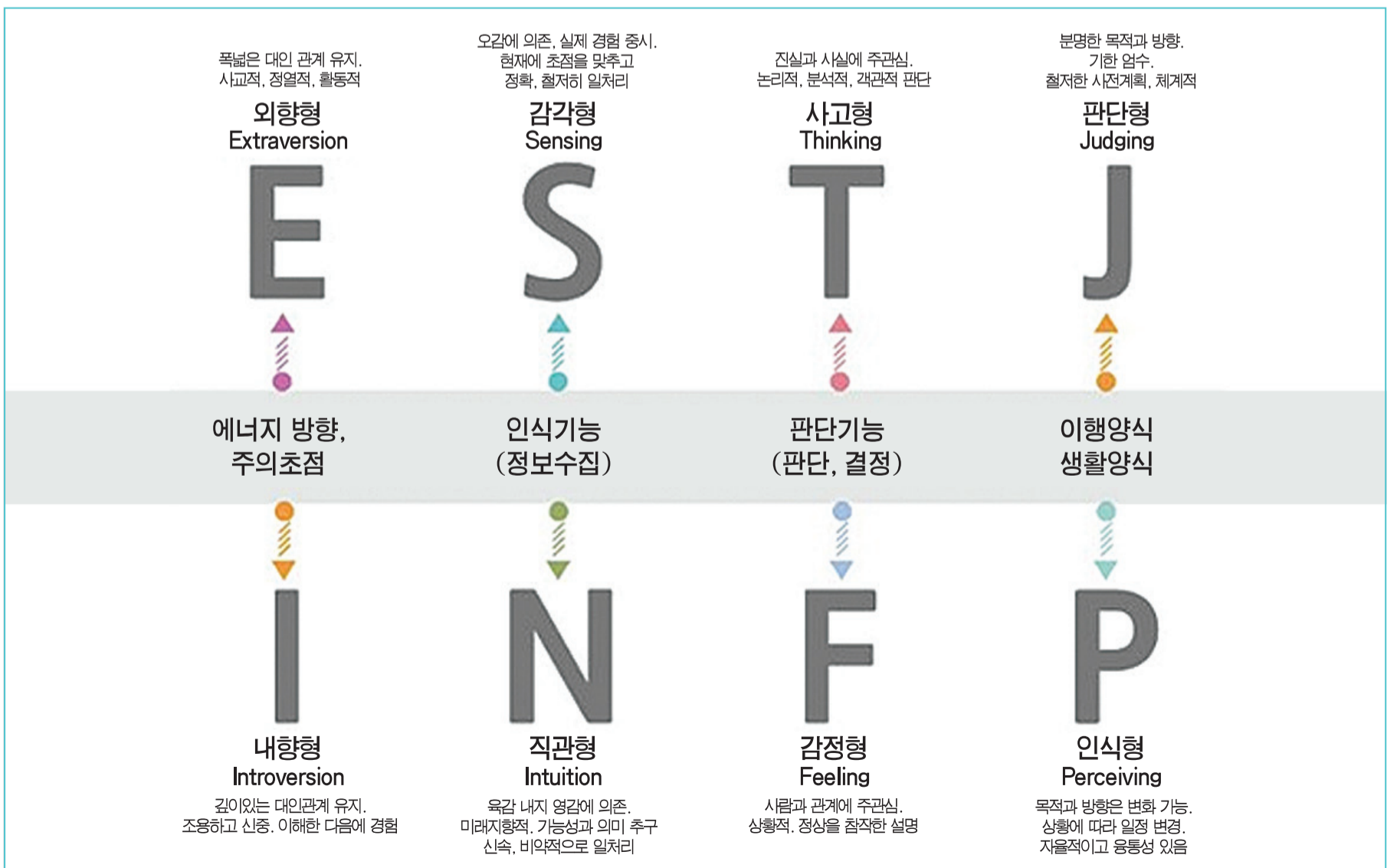
산에 오르지 않아도
신록이 숲이 마음에 들어차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묵묵히 기도하며
이웃에게 그늘을 드리워주는
한그루 나무가 되자고 했지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파도 소리가 마음을 흔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탁 트인 희망과 용서로
매일을 출렁이는
작은 바다가 되자고 했지

MBTI 유형 바로 알기



인생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는 책 ‘여덟단어’

1학년 이서현



이 책을 접하게 된 건 꽤 오래 전이다. ‘책은 도끼다’를 쓴 박웅현 작가의 후속작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로 삶을 대하는지에 대해 인생 선배로서의 담담한 조언을 전해준다.

이 책은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로 문을 연다.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으로 엮여있는데, 여덟 개로 나누어져있지만 결국은 인생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다.

다른 인문학 책과 달리 여러 상황들을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

고 짓밟아야할 것은 짓밟으라고 이야기한다.

우선 ‘자존’으로 시작한다. 자존에서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후배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본인은 이 문장을 보고 당연히 공부를 잘 해야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우선 공부를 잘해야 시작이 좋으니까.

하지만 박웅현 작가는 달랐다. 하나를 꼽으려면 ‘자존’이라고 이야기했다.

가치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지만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자존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순간 나는 왜 내 행복을 사회의 기준에 맞출까? 라는 생각이들어 부끄러웠다. 자존에 이어서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마지막으로 ‘인생’으로 마무리한다. 다른 것들도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지만

나는 ‘자존’ 단어 파트를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읽었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아닌 외부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외부에 맞춘 기준에 나를 살아서 아무리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하지만 여덟단어 중 자존을 읽고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굳건하게 나를 존중하고 믿는다면 나에게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다. 내 기준에 빗대어 이

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다들 인생이 처음이고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하는 인생, 아무도 어떤 길을 가야할지 가르쳐주지 않기에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고 단독이며 함께 걸어가는 길이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행복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분명 불행한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깥의 눈치 보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든든한 인생 선배가 이야기해주는 책, ‘여덟단어’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이야기하

면서 마무리하고자한다.

“인생의 정답을 찾지 마시길, 정답을 만들어가시길. 내일을 꿈꾸지 마시길, 충실한 오늘이 곧 내일이니. 남을 부러워 마시길,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길, 당대는 흐르고 본질은 남는 것. 멘토를 맹신하지 마시길, 모든 멘토는 참고사항일 뿐이니.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단지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길. 그리고 당신 마음속의 올바른 재판관과 상의하며 당신만의 인생을 또박 또박 걸어가시길. 당신이란 유기체에 대한 존중을 절대 잃지 마시길.”



스물다섯 스물하나

2학년 김서정



스물다섯 스물하나 1998년, 시대에 꿈을 빼앗긴 청춘들의 방황과 성장을 그린 청량 로맨스드라마이다. IMF로 인한 재정 문제로 학교에 있는 펜싱부가 폐지되면서 시대에겐 펜싱 선수의 꿈을 빼앗긴 18살 나희도.

펜싱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보다 가족이 먼저였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고유림.

시대에겐 꿈뿐만 아니라 돈, 희망, 가족 모두 빼앗긴 22살 백이진.

휘어지는 법보다는 부서지는 법만 알았던 전교 1등 지승완.

이 등장인물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간다. 숨이 막히는 현실과 장애물에도 서로의 응원에 힘입어 가까이 부딪혀본다.

이 드라마는 로맨스의 요소도 많지만, 주인공들의 각자의 청춘이 얼마나 아팠는지, 행복했는지,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가 더 인상 깊었던 것 같다.

이 드라마를 보며, ‘나의 청춘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꿈과 목표, 지향하는 가치관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나의 일상은 강의, 과제, 시험공부, 아르바이트만을 반복하며 그 자리에서 쳇바퀴만을 굴러대고 있었고, 불확실함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회피했다.

그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반복되는 일

상에 번아웃이 오며 나의 청춘이 얼룩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도전하는 법과 실패하여도 짧게 좌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혹여 반복되는 일상 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었다. 스물하나의 성장통을 겪고 있던 나에게 많은 위로, 조언, 행복을 주어서 정말 고마웠고,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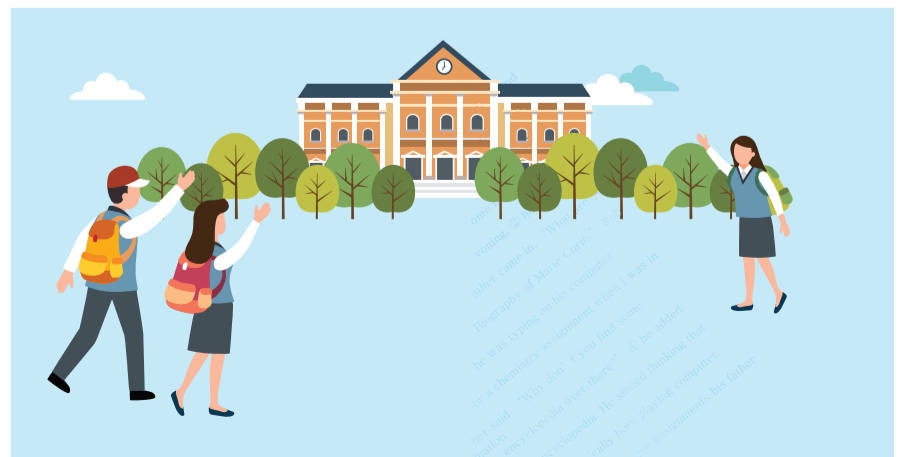
같은 드라마였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청춘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지치고, 무료하더라도 혹은 너무 과하거나 뜨겁더라도 괜찮다고.

우리 모두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튜터 소감문

3학년 조은아

1학년 2학기 개강 전, “해부학 튜터링”에 참가여부를 조사하는 설문이 올라왔다. 튜터를 하면 막중한 책임감이 따를 것 같았다. ‘누군가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튜터를 선택했다. 하지만, 색다른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튜터에도 중복 지원을 했다. 마침내, 4명으로 구성된 튜터링 조가 생겼다. 그리고 나는 ‘튜터’로 선정됐다. 잘 해낼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나’보단, 남의 참가동기를 고려해보았다. ‘튜터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를 생각하니,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닌, ‘유익함’으로 돌려주자고 다짐했다. 어릴 적, “빨간펜”같은 가정학습지 선생님처럼 진행하고 싶었다. 학습지에 그림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듯, 재미로 가득했던 나의 경험으로, 튜터들을 위해 이와 같은 신선한 자료를 만들고 싶었다. 첫 멘토링 활동을 앞둔 나의 긴장감을 잊을 수 없다. ‘어떻게 2시간동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방대한 양의 중요한 내용을 담기에만 집중했던 탓에, 시간 내에 그림에 맞게 암기해야 할 의학용어들을 다 외우지 못했다. 자료 준비에 있어서 나의 실수라고 느꼈다. 다음 회차 준비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두어 시간 내에 외울 수 있는 중요 단어들만 수록하니, 상호테스트 시간도 가질 수 있어 더 유용한 튜터

링이 될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큰 세모, 작은 세모 등을 활용하여 한 눈에 들어오는 도식화를 해주셔서 자료에 도식화를 사용했다. 인체 구조를 보고 큰 세모, 작은 세모로 기억할 수 있어 튜터들이 암기가 잘되었다고 말해주었다. 다소 어색한 내 영어 발음에 조원들이 웃기도 했다. 자료를 읽어주며, 교수님께서 강조한 부분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읽기도, 외우기도 어려운 단어가 있었다. (흉쇄유돌근, Sternocleidomastoideus) 조원들과 이

단어만큼은 꼭 외우고가자고 하여, 스티노/크레이도/마스토이디어스를 흥얼거리며 외우곤 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단어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어느새 적지 않은 소중한 자료들이 생긴 것이다. 자료를 만드는데 들이는 시간과 인쇄하며 나눠주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모인 자료들을 보니, 시험 대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 실습 시에도 꺼내볼 수 있는 그림카드도 될 수 있었다. 지원받은 튜터비를 통해, 쌀쌀한 날씨에 세미나실

에서 간식을 나눠먹으며 튜터링을 했던 것이 좋은 추억이 되었다. 남을 위해 공부했던 것이 나에게 더 선명한 지식으로 남을 수 있었다.

중요 내용을 정리하고 튜터링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낭비가 아닌 유익한 시간이었다. 튜터링을 되돌아보며, 튜터들과 꼭 해부학에 대한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황을 주고 받으며 가까워 질 수 있었다. 학습도 친목도 모두 잡을 수 있는 ‘튜터링’은 부산여대대학교의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2학년 유효경



내가 읽은 책 제목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다.

이 책은 어른이 된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한참 인간관계에 힘들어할 때 선물을 받은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특히 나는 Part 1인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to do list’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위로를 받은 거 같다.

Part 1에는 많은 목차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이 목차들을 읽고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 자신에게 신경을 못 쓰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았던 과거를 생각하며 위로를 받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항상 남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 또는 나를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내 감정을 속이면서 행동을 한 적이 있곤 하는데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이 부분 마지막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읽자마자 머리 한 대를 통하고 맞은 기분이었다. 우리는 남들 시선에 너무 신경 쓰고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하여 가끔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남들 눈에 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거 같다는 생각을 했다.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to do list’라는 제목을 가진 Part 3에서는 ‘힘이 들 때 힘이 든다고 말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 부분에는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감정을 묶어 두면 자신에 대한 감각은 무뎠진다. 그 무뎠진 감각은 다른 감정들도 무디게 만들고,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착취되는 자신을 방치하게 된다. 그렇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은 변함없더라도 힘이 들면 힘들다고 투정 부려야 하고 못 버티겠으면 잠깐은 멈춰 설 줄 알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나도 힘이 들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말하지 않는 성격이다. 내가 이걸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과연 내 힘듦에 공감할까? 위로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 사람까지 힘들까 봐 말을 잘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성격이다.

하지만 내가 힘든 걸 나 혼자 끝까지 안고 가다 보면 언제 어디서 그 힘듦이 폭발할지도 모르고 내가 끝까지 안고 간다고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고 조금의 위로라도 받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니까 저 부분을 읽고 앞으로는 나도 힘든 일이 있으면 주위 사람한테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 또는 자존감이 낮거나 인간관계에 치이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다.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간호학과 정희영교수

우리대학은 1954년 개교한 이래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대학의 비전을 '창의적 직무수행 능력과 인간적인 자질을 갖춘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재상으로 '성공하는 실무인재', '도전하는 창의인재', '소통하는 인성인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소통하는 인성인재'는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감성적인 감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의미하며, 여기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봉사와 예의가 포함된다.

봉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몸을 움직여 행동함으로써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힘쓰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며, 특히 지역사회 대상의 봉사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이 지닌 주요 책무성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대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맥락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과의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핵심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간호학과의 경우 전인간호를 실천하는 예비바른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2012년



간호학과가 개설된 이래 지속적으로 소록도 봉사, 음성꽃동네 봉사 등의 다양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까지 그 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좀 더 친근하게 지역사회에 다가감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대감

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사회주민 대상의 봉사활동으로 한방무료진료활동과 부산지역 간호대학 연합동아리 봉사활동이 있으며, 간호학과 재학생과 교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방무료진료활동은 부산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사하구에 위치한 두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 지하철이 개통되어 교통이 많이 좋아지긴 하였으나 우리 학생들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의 단기적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21년 두송종합사회복지관과 MOU를 체결하고, 2022년 현재 연간 및 월간 봉사일정 계획과 참여자 선정까지 마무리 되어 매월 1, 3주 일요일마다 일정별로 봉사활동이 진행 중이다.

주요 봉사활동 내용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의 노인들에게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주 대상자이다. 봉사에 참여하는 학생, 간호사, 의사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먼저 학생들이 사전에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신 어르신들을 진료실로 안내하면, 진료

전 간호사는 협압측정과 간단한 설문 실시 후 한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의사는 어르신별로 개별 문진, 진료 및 처방, 시침을 내리면 다시 학생들이 발침과 어르신들이 드실 복용약 준비를 하고 간호사는 복용법을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봉사활동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선배 의료인들의 대상자를 대하는 마음과 자세를 보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존재적 가치와 긍지를 확인하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아마도 선배배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친숙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학과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동기 유발도 되었을 것이다. 봉사활동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향후 지역사회 대상의 봉사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지속되어 우리학생들이 탄탄한 사회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편집후기

2022년 246호 학보 작업을 마쳤다. 여름 여행지 추천을 작성하면서 일상이 회복되었다는 해방감에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여덟단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할 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조용히 사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처음에는 학보사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첫 작업이라 부족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교수님, 선배님들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었다.

첫 작업인 만큼 어리숙한 부분도 많지만, 재밌게 봐준다면 정말 뿌듯할 거 같다.



원고모집

학보사에서는 학우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수필, 시, 비평문, 기행문, 사진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우들의 글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 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처 : 학보사메일 - hakbo@bwc.ac.kr / Tel:051.850.3296

신문 후기 모집

학보사에서는 교내 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신문에 대한 다양한 평가 좋았던 기사, 아쉬웠던 점 등에 대한 후기를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한글문서로 500자 내외의 글을 연락받을 휴대폰 번호와 함께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선정된 글에 대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학보메일 : hakbo@bwc.ac.kr